



미국 주택시장 둔화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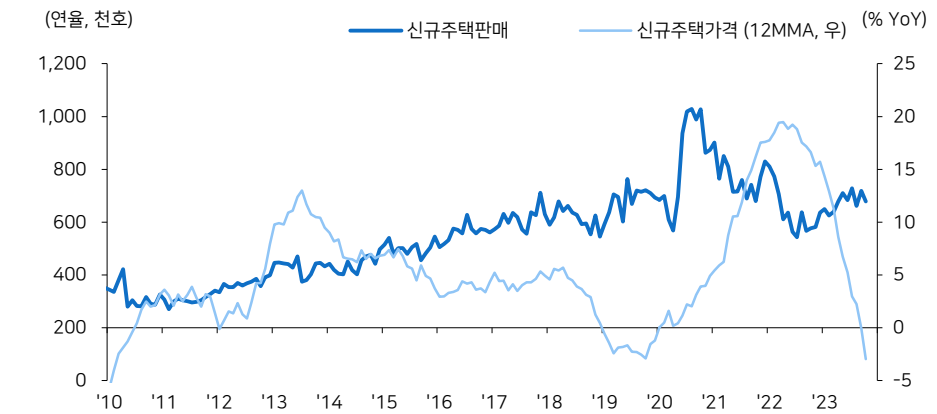
미국 10년 금리는 전일대비 8bp 하락하며 재차 4.4% 하회. 지난주 금요일 독일 재정 우려에 소폭 상승했던 미국 금리는 어제 미국 주택매매지표 부진 확인되며 장중 추세 하락. 여기에 양호한 중단기물 입찰 결과에 장기금리 하락에 추가 탄력

미국 10월 연율화 신규주택 매매건수는 67.9만건으로 전월대비 5.6% 감소, 9월 숫자가 75.9만건에서 71.9만건으로 하향조정된 점을 감안하면 컨센서스(-5.1%)를 크게 하회한 것으로 봐야 함. 여기에 12개월 평균 미국 신규주택 가격 추이를 보면, 지난달부터 전년대비 하락하는 구간에 진입하기 시작. 작년 하반기부터 다시 회복하던 신규주택 시장이 둔화되는 모습 확인되며 주택 가격과 연동된 주택임대료 물가 우려도 덜 수 있게 되었음

금리에 민감하게 회복하던 11월 시장이었지만, 어제는 금리 하락에도 S&P500은 전일대비 0.2% 하락하며 소폭 조정. 그럼에도 빅테크 주가는 견조. 실적발표 이후 줄곧 하락하던 엔비디아도 어제는 1.0% 상승했고, 아마존은 0.7% 상승하며 신고가 경신. 마이크로소프트는 전일대비 0.3% 상승하며 신고가 경신, 애플이 0.1% 하락하며 시총 1, 2위 격차 축소(MSFT 2.81조 달러 vs AAPL 2.95조 달러)

주가지수는 대장주가 부진하면 함께 부진. 그런데 역사적으로 2위 종목이 1위를 상향돌파했던 구간에서는 대장주 부진에도 시장 추세를 유지했음. 애플에게 스마트폰 다음(애플카, 비전프로 등)이 불투명해지고 있음에도 시장을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이유

그림1 미국 신규주택판매와 신규주택가격



자료: US Census Bureau,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추천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